

케이엘푸드제일차(유)

정기평가
평가일: 2018.04.06

유동화기업어음 신용등급

구분	발행금액(한도)	발행(예정)일	만기(예정일)	직전등급	평가등급
제1회차 ABCP	500억원	2016.09.21	2016.11.21	A1(sf)	상환
제2회차 ABCP	500억원	2016.11.21	2017.02.21	A1(sf)	상환
제3회차 ABCP	500억원	2017.02.21	2017.05.21	A1(sf)	상환
제4회차 ABCP	500억원	2017.05.21	2017.08.21	A1(sf)	상환
제5회차 ABCP	500억원	2017.08.21	2017.11.21	A1(sf)	상환
제6회차 ABCP	500억원	2017.11.21	2018.02.21	A1(sf)	상환
제7회차 ABCP	500억원	2018.02.21	2018.05.21	A1(sf)	A1(sf)
제8회차 ABCP	500억원	2018.05.21	2018.08.21	A1(sf)	A1(sf)
제9회차 ABCP	500억원	2018.08.21	2018.09.21	A1(sf)	A1(sf)

주1: 위 각 예정발행일 및 예정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각 회차 ABCP의 실제 발행일로 함.

주2: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과 동일하게 각 회차 ABCP의 발행일 및 만기일은 조정될 수 있음.

Analyst

김준섭 수석연구원	02) 6966-2457	junseop.kim@scri.co.kr
신윤섭 책임연구원	02) 6966-2459	yoonsub.shin@scri.co.kr
박민식 실장	02) 6966-2461	mspark@scri.co.kr

거래참가자

거래유형	대출채권 유동화
업무수탁자	(주)국민은행
자산관리자	(주)국민은행
신용보강기관	(주)국민은행
법률자문기관	법무법인 총정
자산실사기관	-
주관회사	(주)국민은행

주) 정보제공자: 주관회사 및 업무수탁자

유동화자산

유동화자산	대출채권 및 부수 권리
차주	롯데지알에스(주)(구, 롯데리아)
대출약정금	500억원
대출실행일	2016.09.21
대출만기일	2018.09.21
이자지급	매 이자계산기간 개시일 선급
원금상환	만기일시상환

평가의견

서울신용평가(주)는 케이엘푸드제일차(유)(이하 'SPC')가 발행하였거나 발행할 제7회차 내지 제9회차 유동화기업어음(이하 'ABCP')의 신용등급을 A1(sf)로 유지하며, 주요 평가요인은 다음과 같다.

- (주)국민은행의 유동화증권 매입보장 및 신용공여 의무
- (주)국민은행이 제공하는 유동성공여
- (주)국민은행과 체결한 이자율 스왑계약

유동화개요

본 유동화는 SPC가 2016.9.20일 롯데지알에스주(이하 ‘차주’)와 체결한 대출약정(이하 ‘대출약정’)에 의한 대출약정금 500억원의 대출을 기초로 제1회차 ABCP를 발행하고 향후 차주에 대하여 보유하는 대출채권 및 그에 부수하는 권리 등의 관리, 운용 및 처분에 의한 수익 또는 차환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을 통해 본 ABCP를 상환하는 구조이다.

한편, 제1회차 내지 제6회차 ABCP가 발행·상환되었고, 평가일 현재 제7회차 ABCP(발행금액 500억원)가 발행되어 있다.

유동화자산

본 유동화자산은 SPC와 차주가 체결한 대출약정에 의해 SPC가 보유하는 대출약정금 500억원에 해당하는 대출채권이다. 대출금은 만기일시상환되는 조건이며, 대출이자는 매 이자계산기간 기산일에 선급된다. 지급된 대출이자는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대출금이 예정된 대출만기일 이전에 상환되는 경우에도 반환되지 아니한다. 한편, 기한전 상환은 대주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 어느 이자지급일에 기한전 상환으로 인하여 대주가 부담하게 되는 일체의 금액 및 제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한편, SPC의 업무수탁자인 (주)국민은행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유동화자산에 대한 이자는 정상적으로 수취되고 있다.

주요 위험요인과 통제방안

본 유동화와 관련하여 검토된 주요 위험요인은 유동화자산의 신용위험, ABCP 차환발행위험, 유동성 위험 등이다.

유동화자산의 신용위험은 차주가 대출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ABCP의 상환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으로, 차주의 신용도 등을 감안하면 원리금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또한 차회차 ABCP 인수대금이 적시에 입금되지 않아 기 발행된 ABCP의 상환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ABCP 차환발행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유동화자산의 신용위험 및 ABCP 차환발행위험은 (주)국민은행이 ABCP 매입보장 및 신용공여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통제된다. SPC와 (주)국민은행은 기업어음증권 매입보장 및 신용공여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주)국민은행은 SPC에게 500억원을 한도로 ABCP의 각 발행일에 매각되지 않은 잔여 ABCP를 약정된 할인율에 매입할 것을 보장(이하 ‘ABCP 매입의무’)하였다. 또한, (주)국민은행은 업무위탁계약에서 정한 ABCP 발행 중단사유가 발생하거나 기 발행 ABCP에 대한 지급의무 등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이 부족한 경우 SPC에게 500억원 한도의 대출을 실행할 것을 약정(이하 ‘신용공여의무’)하였다.

다만, SPC에게 신용공여의무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주)국민은행은 더 이상 ABCP 매입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ABCP 매입보장 및 신용공여를 합산한 전체 약정한도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5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다.

한편, 대출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유동화 제반 비용 등으로 인하여 SPC가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유동성위험이 존재한다. 이는 (주)국민은행과 체결하는 1.9억원을 한도로 하는 규모의 유동성공여약정을 통해 통제된다.

또한 유동화자산의 이자는 고정금리로 지급되는 반면, 유동화증권에 대한 할인율은 변동금리가 적용되어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유동성위험이 존재한다. 이는 (주)국민은행과 체결하는 이자율스왑 계약을 통해 통제된다.

상기 위험요소와 이에 대한 통제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본 건 ABCP의 신용등급은 기업어음증권 매입보장기관 겸 신용공여은행이며, 유동성공여은행이고, 이자율스왑 계약 거래상대방인 (주)국민은행의 신용도와 연계되어 있으며, (주)국민은행의 신용도는 본 ABCP의 신용도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본 평가에 적용된 주요 평가방법론은 서울신용평가(주)가 공시한 SF 신용평가 일반론(2016)이고, 기타 신용평가방법론도 참고하였습니다. 공시된 신용평가방법론은 서울신용평가(주) 홈페이지 www.scri.co.kr의 Research/평가방법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건 신용평가등급 산정에 이용한 중요자료는 유동화회사 관련서류, 유동화자산 자료, 유동화관련 계약서, 기타 주관회사에서 제공한 자료 등입니다.

본 건 신용등급 산정 시 거래참가자 주식에 표기된 정보제공자로부터 자료를 수령하여 신용평가에 반영하였습니다.

[단기채무 신용등급의 정의]

신용등급	정의
A1(sf)	적기 상환능력이 최상이며, 상환능력의 안정성 또한 최상이어서 투자위험도가 극히 낮음.
A2(sf)	적기 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그 안정성은 A1(sf)등급에 비하여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A3(sf)	적기 상환능력은 양호하나, 장래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이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B(sf)	적기 상환능력은 인정되지만, 그 안정성에 다소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C(sf)	적기 상환능력이 의문시되어 투기적 요소가 강함.
D(sf)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

주1: 상기 등급 중 A2(sf)등급부터 B(sf)등급까지는 당해 등급에서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 기호가 부가될 수 있음.

주2: 상기 등급 중 A1(sf)등급에서 A3(sf)등급까지는 적기상환능력이 인정되는 투자등급으로, B(sf), C(sf) 등급은 환경변화에 따라 적기상환능력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투기등급으로 분류됨.

- 본 신용평가의 평가개시일은 2018년 4월 2일이고, 계약체결일은 2016년 9월 19일이며, 평가완료일은 2018년 4월 6일입니다.
- 최근 2년간 평가요청인과 체결한 다른 신용평가 건수 및 수수료총액은 각각 1건, 7.5백만원입니다. 당사는 평가완료일 현재 평가요청인의 다른 신용평가용역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최근 2년간 평가요청인과 체결한 비평가용역계약 체결 건수 및 수수료 총액은 0건, 0백만원이며, 당사는 평가완료일 현재 평가요청인의 다른 비평가용역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1. 신용등급은 특정 금융투자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현재시점에서의 서울신용평가(주)의 의견입니다. 신용등급은 신용위험을 제외한 다른 위험(시장가치 변동위험, 유동성위험, 운영위험 등의 여타 위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특히, 구조화금융상품의 신용등급은 법령, 조세제도의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등급 및 당사 간행물에 포함된 견해는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관한 서술이 아니며,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따라 신용위험에 대하여 예측한 의견으로서, 이러한 예측정보는 실제 결과치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당사 간행물에 포함된 견해는 환경변화 및 당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신용등급, 평가의견 및 간행물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문을 의미하지 않으며, 특정 증권, 투자의사결정(매매, 보유 등)을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용등급이나 평가의견, 간행물 등은 정보이용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으며, 정보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정보이용자들은 유가증권, 발행자, 보증기관 등 투자대상자의 위험에 대해 자체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은 개인투자자들이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개인투자자들이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을 이용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3. 신용평가서, 평가의견, 간행물 등 보고서는 평가대상자 또는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와 각종 공시자료 등 당사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자료원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당사는 평가대상자 또는 의뢰인으로부터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지 않았으며 중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평가대상자 또는 의뢰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신용평가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평가의 특성 및 자료원의 제한성, 분석자, 분석도구 또는 기타 요인에 의한 오류의 발생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 결정시에 활용되었거나 본 보고서에 주요 판단근거로서 제시된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도 그 정확성, 적합성 또는 충분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제공된 정보의 오류, 사기 및 허위, 미제공 등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신용등급 및 본 보고서에 반영되었거나 포함되어 있는 정보 및 기재내용의 정확성, 완전성 및 적합성을 당사가 보증하거나 약속하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들은 신용등급 부여에 필요한 주요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이며, 평가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가 기재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당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사항을 제외하고 신용등급 및 본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5.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서울신용평가(주)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사전서면동의 없이는 무단 전재되거나 복사, 인용, 재판매 또는 유포될 수 없습니다.